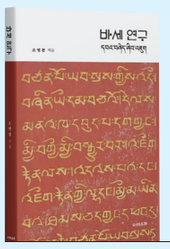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31~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2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3	부처님의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4	여래장사상의원전(학술총서77)여래장경부증불감경승만경	이평개 역주강설	민족사
5	사찰의비밀(일주문에서대웅전뒤편산신각까지구석구석숨겨진)	자현 지음	담앤북스
6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부처님의가르침불자의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도표로읽는경전입문:방대한팔만대장경의세계가도표로한눈에들어온다	정운/배종훈 그림	민족사
8	도표로읽는불교입문	이자랑,이필원	민족사
9	불자의마음가짐과수행법	일타스님	효림
10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책세상

티베트불교 전래, 신라 '김무상' 스님이 견인했다



바세 연구
조병활 지음
여의운하
1만8000원

8세기 티베트불교 역사 기록한
〈바세〉 한국어로 최초 완역돼
무상 스님, 삼예종론 전말 확인
저자 논문 2편으로 이해 도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삼예사 대전 전경. 티베트불교의 방향성이 결정지어진 역사적 논쟁인 '삼예종론'이 이뤄진 곳이다. 사진제공=여의운하

티베트불교는 한국인에게도 낯설지 않다. 당장 세계적인 정신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티베트불교의 상징이며, 최근 방한한 캉쎄르 린뽀체도 티베트불교의 지도자다. 하지만, 티베트의 역사나 티베트불교 전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불자들은 많지 않다. 심지어, 티베트불교 전래와 흥륭을 예언한 사람이 신라스님이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그렇다.

8세기 중·후반의 티베트불교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바세〉가 우리말로 처음 완역됐다. 조병활 박사가 펴낸 〈바세 연구〉는 그의 오랜 노력이 담긴 역작으로, 책에는 〈바세〉의 역주문과 티베트어 원문 그리고 〈바세〉 관련 저자의 연구논문 2편이 실렸다.

〈바세〉는 티베트 제37대 짼뽀(왕·황제의미) 치데쭉땐과 제38대 짼뽀 치송데짼 부자 통치시기에 있었던 불교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8세기 중·후반 당시 티베트에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과 삼예사 건립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조 박사가 〈바세〉에 대해 알게 된 것은 1997년 인환 스님(1931~2018)과 김지견(1931~2001) 교수가 펴낸 〈신라불교연구〉에 수록된 야마구치 즈이호(1926~2023) 도쿄대 교수의 '티베트 불교와 신라 김화상'이라는 논문을 통해서다. 무엇보다 '김화상'이라는 신라스님이 티베트불교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기록이 〈바세〉에 있다는 점이 조 박사의 학문적 호기심을 이끌었다.

이후 조 박사는 2012년 중국 청해성 청해민족대학 티베트어진수반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갔고, 그곳에서 티베트어판 〈바세〉를 만났지만, 티베트어 실력이 부족해 곧바로 해석하지는 못했다. 2013~2015년 북경대에서 수학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 박사는 다시 청해성으로 건너가 티베트 사찰에 3년 동안 머물며 티베트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했다. 2019년 귀국 후에는 틈틈이 〈바세〉의 번역에 착수했고, 그 노력의 결과물이 〈바세 연구〉다.

그렇다면 티베트불교의 앞날을 예언한 신라스님 '김화상'은 누굴까. 조 박사를 비롯한 학자들은 '김화상'이 '무상 스님'이라고 지목한다. 〈송고승전〉 등에 나타난 기록에 따르면 무상 스님은 신라 왕의 세 번째 아들로 군남사에서 출가해 계를 받았으며, 당나라로 유학하며 수행 정진했다. 무상 스님의 법맥은 오조 홍인과 연결된다. 오조 홍인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인 지선 선사가 본주의 덕순사로 돌아가 법을 펼쳤고, 이를 제자 처적 선사가 이었다. 처적 선사에게는 4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무상 스님이다.

무상 스님이 〈바세〉에서 보이는 행적들은 매우 구체적이다. 짼뽀가 토번(현재 티베트)에 불법(佛法)을 펴기 위해 바상씨, 바새낭 등에게 당나라에 다녀오라고 지시했고, 그 시기 당나라에 있던 무상 스님은 "4개월 뒤 토번의 사자들이 도착할 것이고, 그 중 보살의 화신이 있다"며 그들의 복장과 형상을 그렸다. 4개월 뒤 도착한 토번의 사자 중 바상씨와 바새낭이 그 형상과 같았다. 김 화상과 이들의 만남을 〈바세〉는 이렇게 그린다.

김 하상(화상, 무상 스님)이 상씨의 발을 만지며 예를 표했다. 상씨 역시 김 하상의 발을 잡고 답례했다. 김 하상이 상씨에게 "당신은 마명보살의 화신으로 티베트 땅에 대승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그곳에 불교의 교의를 확립할 것이기에 당신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라고 예언했다.

이후에 이어지는 질의에서 무상 스님은 현재 토번의 왕이 정법을 펼칠 보살이며, 〈불설업보차별경〉 〈불설도간경〉 〈금강경〉 순으로 왕에게 강설하며, 사호르 출신 보디사따(샨타락시타) 스님을 선지식으로 토번에 초청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는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자세하게 알려줬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스님의 행적에 대해 일본에서 활동 중인 티베트학 전문가 캉까르출침깨상은 '한국 김화상과 티베트불교의 관계' 논문에서 "티베트불교의 발전을 위해 신라 왕자 김화상이 인도해 준 은혜 역시 티베트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상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들은 조 박사가 저서 안에 수록한 '〈바세〉 5종 필사본에 보이는 김 하상 기록 비교 연구'에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이 밖에도 〈바세〉에는 외래종교인 불교와 티베트 자생종교인 본교의 대립, 샨타락시타 스님과 파드마삼바바 스님이 티베트에 들어오는 과정, 삼예사 건립 등이 내용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삼예종론의 전말이 담겨 있어 〈바세〉는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삼예종론은 8세기 말의 삼예사를 무대로 이뤄진 인도불교와 중국불교 사이의 논쟁이다. 논쟁의 결과, 인도불교가 승리를 거뒀고 이후 티베트불교의 방향성이 결정지어진 중요한 사건이다.

조 박사는 "어떠한 나라를 알려면, 역사와 문화부터 알아야 한다. 티베트불교를 알려면 티베트불교가 어떻게 전래되고 발전돼 왔는지부터 공부해야 한다"면서 "〈바세연구〉가 티베트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신라 무상 스님과 삼예종론 연구가 깊어지는 자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자 **조병활**은?

북경대학 철학과에서 북송 선학사상 연구로 철학박사를, 중국 중앙민족대학 티베트학연구원에서 티베트불교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했다. 〈조론연구〉 〈불교미술기행〉 〈다르마로드〉 등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조론오가해〉(전5권) 〈조론〉 등을 펴냈다. 제3회 퇴옹학술상(2021),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학술상(2023),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2023) 등을 수상했다.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성철선사상
도대현/448쪽/23,000원

인도불교사
정순일/726쪽/35,000원

주역선해 연구
청화/510쪽/25,000원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280쪽/15,000원

불성론 연구
최현민/368쪽/18,000원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천수경 연구
정각/500쪽/28,000원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454쪽/23,000원

현수 법장 연구
계환/252쪽/15,000원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408쪽/20,000원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320쪽/17,000원

경봉 선사 연구
정도/304쪽/17,000원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360쪽/18,000원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524쪽/25,000원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436쪽/23,000원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242쪽/15,000원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454쪽/23,000원

불교세시풍속
오인/446쪽/23,000원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424쪽/23,000원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484쪽/24,000원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496쪽/25,000원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292쪽/17,000원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488쪽/25,000원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364쪽/18,000원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464쪽/25,000원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272쪽/16,000원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364쪽/20,000원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536쪽/27,000원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312쪽/17,000원

불교교육론
이송곤/528쪽/27,000원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328쪽/18,000원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384쪽/20,000원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824쪽/37,000원

경량부 연구 세종학술도서
카토 쥰쇼 저, 김재현 역/576쪽/37,000원

붓다의 법담학 연구
이광준/448쪽/25,000원

생전예수재 연구
승범/280쪽/18,000원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 승려들
이윤옥/372쪽/22,000원

불교 시간론 원전 연구 세종학술도서
정은해 역해/696쪽/35,000원

대승불교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임은정 역/384쪽/23,000원

불교와 사회윤리
차차석/304쪽/18,000원

환성지안 선사
무각/344쪽/22,000원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이명호/224쪽/17,000원

반야경의 사상 개설
이광준/336쪽/20,000원

불교사회경제사상
박경준/436쪽/25,000원

용성 사상 연구
진관/296쪽/20,000원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284쪽/20,000원

불타의 대승선맥
오형근, 박화문/316쪽/22,000원

설잠 김시습의 선사상 연구
철우/520쪽/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